

보도시점 2025. 6. 24.(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2025. 6. 23.(월)

## 에버랜드, 다회용컵 무보증금 본격 시행... 놀이동산에 적용 최초 사례

- 환경부·삼성물산리조트부문·용인시, 6월 25일부터 다회용컵 무료로 사용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에버랜드(용인시 처인구 소재)에서 국내 놀이공원 최초로 공원 내 매장에서 일회용컵 사용 저감을 위해 포장(테이크 아웃) 음료에 대해 다회용컵 무료 사용을 6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에 앞서 환경부는 올해 3월 25일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용인 특례시와 함께 놀이공원 최초로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를 위한 ‘에버랜드 맞춤형 일회용컵 사용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에버랜드는 통상 천원인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고 포장 음료 판매 시 무료로 다회용컵을 제공한다.

\* 일반적으로 다회용컵의 회수를 위해 포장을 요청할 경우 천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반납할 경우 돌려줌(강릉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

우선 6월 25일부터 직영 매장과 입점 매장에서 무보증금 다회용컵 사용을 시행하며, 일부 가맹점(프랜차이즈)점은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을 검토 중이다. 에버랜드와 같이 운영하는 물놀이동산 캐리비안베이는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에버랜드는 다회용컵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식음매장, 놀이기구(어트랙션) 주변, 입출구 등 60여 개 주요 거점에 반납함을 설치했다. 아울러 회수된 다회용컵은 세척 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와 에버랜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에버랜드 다회용컵 도입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공원 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과 매장에 비치된 내부게시광고(POP) 등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은 다회용컵 사용은 놀이공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의 대형시설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일회용컵 감량 방안”이라며, “비슷한 특성을 지닌 다른 지역의 대중시설로도 확산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에버랜드 다회용컵 도입 관련 자료.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이정미 (044-201-7340)
		사무관	김태현 (044-201-7349)



관광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다회용컵 종류 및 규격



□ 반납함 운영

